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미은



정신과 의사 박종호씨는 클래식 마니아이자, 오페라 해설가로 유명하다. 그가 펴낸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시리즈는 클래식 대중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중 하나일 거다.

그의 책이나 관련 글을 읽을 때마다 무척 부러웠던 게 있었다. 바로 그가 운영하는 클래식 음반 전문점 '풍월당'.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곳은 단순한 음반 가게가 아니라, 다양한 클래식 강좌가 이뤄지고,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이 열리는 문화공간이다.

함께 '니체'를 읽는 공간

그래서 지난 4월 광주시 동구 학동에 클래식 음악 감상실 '다락'(cafe, daum.net/darakclassic)이 문을 열었을 때 기대감이 커졌다.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과 청진한 환경을 갖춘 '다락'이 지역 문화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 곳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도 있었다. 문화관을 취재하면서 광주의 클래식 향유 인

구가 아주 미미하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관을 준비하며 의욕에 넘쳐 있던 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역시 "너무 기대를 갖지 마시라, 길게 보고 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막상 문을 열었을 때는 우려가 현실로

서울의 '풍월당'과 광주의 '다락'

나타났다. 홍보가 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한달여 동안 다락을 찾는 인원은 매일 10~20여명에 불과했다. 좋은 공간을 열어놓았는데 찾는 이가 없으니 주인장은 애가 났다.

하지만 입소문이 조금씩 나고, 바쁜 시간을 쪼개 주 1회 모임을 가지면서 영상을 악회 프로그램들을 기획한 운영위원회들 덕에 다락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개관 초기부터 꿈꿔왔던 '클래식 강좌'를 오픈했을 때는 인원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문의가 이어

져 계획보다 일찍 시작한 2기 회원 모집 역시 6일만에 마감됐다.

'필 받은' 주인장은 다락 앞 식당 공간을 또 다른 감상실로 개조하고, 유리스미2, 마크 레빈슨 등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해 8월 중순에 문을 연다.

요즘 들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 어가는 문화공간과 그곳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덕에 지역 문화계가 풍요로워진 느낌이다.

지난해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가 문을 연 '카페 필로소피아'는 최근 공간을 확장해 광주시 동구 대인동 구역사거리쪽에

구가 아주 미미하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관을 준비하며 의욕에 넘쳐 있던 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역시 "너무 기대를 갖지 마시라, 길게 보고 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막상 문을 열었을 때는 우려가 현실로

그로' 역시 기획자인 조승기씨가 지난 2009년부터 사비를 들여 운영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마침 올해는 광주문화재단으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게 돼 2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펼칠 기회도 잡게 됐다.

“이제 당신이 즐길 차례”

광주시청 청사에도 숨어 있는 공간이 있다. 시청 방문객에게 홍보영상상을 틀어주는 공간이 아담한 시네마로 변신한 것이다. 40석 규모의 작은 공간이지만 훌륭한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몰입도가 높아지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1주일에 두 차례 '카모에 식당' 등 예술영화들을 상영 중이다. 영화와 어울리는 첼로연주회 작은 음악회도 함께 열고 있다.

또 최근에는 각종 단체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무료 풍물 강좌도 풍년이다.

'광주에 즐길 만한 문화가 없다'는 주제를 하는 걸 자주 듣는다. 일정 부분은 맡길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부지런히 떨고 밟음을 판다면 무엇을 할지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 빠질 수도 있다.

광주 구석구석에 세포처럼 박혀있는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문화 공간들과 프로그램들, 이제 당신이 '적극적으로' 즐길 차례다.

〈문화생활부장〉 mekim@kwangju.co.kr

면 칭찬하는 일이 낯선 간접고 썩스러울 수 있다.

차츰 칭찬 감각이 무뎌져 가는 나를 발견하곤 스스로 놀랄 때가 더러 있다. 상대방의 나에 대한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역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젊은 혈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덤벙대던 지난날도 있었다. 잘한 일을 찾아내어 칭찬해주는 '고래반동'은 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조그만 잘못에도 버럭 화를 냈던 일들이 돌아보면 부끄러워진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나아 이를 앞세우지 않고 이숙해질 때까지 칭찬연습을 하며 살자고 다짐해 본다. 너나 할 것 없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그런 살맛나는 세상이 그립다.

〈수필가·UNIST 입학사정관〉

며 차 한 잔을 권했더니 과분한 배려라며 사양하면서도 무척 밝은 표정을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보이지 않는 목걸이를 메고 사는 것이라 여겨진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목걸이를 의식하면서 행동한다면 누구나 인간대접 받는 멋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던가. 고래뿐만 아니다. 사람도 칭찬과 격려를 통해 신바람이 나면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칭찬에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닐까. 예로부터 체면이나 형식을 중요시하는 유교문화에 길들여진 탓도 있으리라.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이 칭찬을 잘하듯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것을 왕왕 볼 수 있다. '사람의 문제'를 간파하기 때문이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 혹은 합리적인 메커니즘 안에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을 무시하면 조직의 성공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접근방법으로 주로 외재적 통제에 중점을 두는 능률적 접근방법과 인간의 내재적 심정에 중점을 두는 인간관계적 접근방법의 상반된 조류가 있다고 한다. 인사를 할 때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의 긍정적 자부심이 발현될 수 있는 인간적 접근방법일 것이다. 물론 그 안에 사랑은 기본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인사가 마무리되었다. 인사의 본질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니 다소 불만족스럽다 해도 국민을 위해 수긍할 일이다.

이제 우리 도청직원 또한 이 더위를 이기고 잠시 느슨했던 몸과 마음을 촌슬러 간단 없는 도정시책의 추진과 함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골마을의 '외로운 할머니들'을 살펴드려야 한다. 그것이 인사의 아름다운 끝이요, 새로운 시작이다. 어차피 회자정리는 모든 사물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시인·전남도청 인력관리과장〉

린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말았다.

아이 말에 의하면 립글로스부터 로션, 아이섀도 등은 물론 1만원대 중국산 메이크업

세트까지 있다고 했다. 관계당국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산 저질 화장품의 판매를 단속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종심·목포시 동명동

시설

타지보다 높은 지역 물가 납득 안 된다

광주·전남지역 서민물가 상승률이 타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조사한 7월 중 '시·도별 서민생활물가 10개 품목' 가운데 광주는 7개 품목이, 전남은 6개 품목이 각각 전국 평균상승률을 웃돈 것이다.

지역 서민물가의 상승 폭이 예사롭지 않다. 데지 갈비(외식)의 경우 광주가 22.1%나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5.5%보다 6.6%포인트 높은 뿐만 아니라 인천(0.7%)에 비해서는 무려 31배나 된다. 전남도 역시 21.6%로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삼겹살도 광주 22.6%가 올라 가장 적게 오른 부산(10.3%)보다 배 이상이 높았다. 전남도는 19.3%로 광주보다는 낮았지만 전국평균(17.3%)을 2%포인트 상회했다. 그밖에 된장찌개, 자장면 등 서민 음식과 시내버스료,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상승폭도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이 같은 지역 서민물가의 높은 상승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데지 갈비나 삼겹살, 된장찌개의 경우 광주·전남이 농·축산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인 인천이나 부산보다 가격 상승이 월등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 지자체의 물가관리가 그만 허술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같은 시·군·구에서 조차 심하게 들쭉날쭉한 지역 음식값을 보면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게 서민물가의 폭등은 엉친 데 덮친 격이다. 타지역에 비해 평범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물가조차 높다면 지역 서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역 물가당국은 물가관리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절실히 짚어야 한다. 광주·전남이 '나후지역'에 이어 '물가가 가장 비싼 곳'이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거도 방파제 유실 '재해 타령'만 할 건가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지난 7일 밤 초속 42m의 강풍과 10m가 넘는 거대한 파도를 동반한 채 한반도의 최서남단인 가거도를 덮치면서 방파제를 초토화시켰다. 가거도는 길이 480m의 방파제 가운데 100m를 무너뜨리고 150m는 형태만 남겨놓았다. 방파제 보호용 콘크리트 구조물인 64t 짜리 테트라포드 5000개 중 2000개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지난 1979년 착공해 30년 만인 2008년 완공된 방파제가 3년 만에 붕괴된 것이다. 태풍 '무이파'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케 한다.

하지만 되풀이 되는 방파제 유실을 놓고 자연재해 탓만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방파제 공사가 당초 10년 완공 목표에서 무려 30년을 걸어온 게 태풍으로 인한 유실 등의 요인도 크지만 장기 간의 예산 지원에 따라 공사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가거도항 준공 이후에도 태풍으로 인

한 피해는 잇따랐다.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184개의 테트라포드가 사라져 14억 원의 피해를 냈으며 지난 6월 발생한 '메아리'에도 10여개의 테트라포드가 유실됐다.

서해 쪽으로 진행하는 태풍이 더 위력적으로 변하고, 횟수가 더 늘고 있는데도 시설물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트라포드는 당초 32t에서 64t 규모로 늘려나갔지만 거세진 태풍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게 이를 말해준다.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물을 그 민물 강화하고 보강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가거도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산의 집중 지원을 통한 집중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유실된 방파제 복구공사에 주력하되 테트라포드를 108t짜리 대형 큐브블럭으로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 '찔끔' 예산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해 재난과 복구를 되풀이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전국7등(戰國七雄)이 득세했던 BC 4세기 말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이다. 당시 여러 나라를 둘며 유세하던 전략가 소진(蘇秦)은 최강국인 진나라를 제외한 6국을 상대로 '진 밑에서 소고리가 되기보다는 차리리 달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설득한다. 결국 6국은 서쪽의 강대한 진과 대결하기 위한 전략(戰國策)이나 삼국지, 손자병법 등 고대

중국 문헌 밑에서 소고리가 되기보다는 차리리 달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설득한다. 결국 6국은 서쪽의 강대한 진과 대결하기 위한 전략(戰國策)이나 삼국지, 손자병법 등 고대

과거처럼 중국과 일본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는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은 식자들이 한반도의 전략을 논할 때 전국책(戰國策)이나 삼국지, 손자병법 등 고대

중국 문헌 밑에서 소고리가 되기보다는 차리리 달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설득한다. 결국 6국은 서쪽의 강대한 진과 대결하기 위한 전략(戰國策)이나 삼국지, 손자병법 등 고대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작금의 난국을 타개할만한 전략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나 천안함 폭침에서부터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일본의 독도 도발에 이르기까지 주변 세력들과 수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진과 장의처럼 아쉬운 시점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한반도의 정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홍행기정경부처장 fredplane@kwangju.co.kr

전략가를 기다리며



학교 앞 문구점 중국산 저질 화장품 판매 단속해야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의 얼굴에 갑자기 붉은 반점이 생겼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피부 트러블이 생긴 것이려니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가 가려움을 호소해 피부과에 데리고 갔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화장품을 쓰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안 쓴다"고 했는데, 아이가 대뜸 학교 앞 문구점에서 뽑은 화장을 헐을까 끼어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

닌다. 그제야 아이 얼굴의 반점과 트러블의 원인을 알았다. 이런 부작용이 자칫하면 심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주의를 듣고 나오면서 너무 화가 났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저질 화장품을 팔 수 있는지 말이다. 그 상점 주인을 찾아가 때

지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앞으로 다니는 그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관(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222-4918 문화생활부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515〉